

탄원서

사건번호: 2025고합1511

피고인 :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

탄원인 :

주소:

연락처: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외 3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자 이 탄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이유로 현재 '일반이적'이라는 죄명으로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적을 이롭게 함' 보다는 '자국을 지키기 위함'이 큼니다. 또한 무인기의 추락으로 인해 기술유출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부수적인 결과이지 목적은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일반이적으로 규정짓고 정치적인 재판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정치적인 판결까지 나온다면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국군의 작전권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것이야말로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제외한 3분 모두 오랜 수감생활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약품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감안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위 4 분은 나라를 사랑하고 안보를 튼튼히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행한 일입니다. 1분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려 국제무대에서 애쓰셨으며, 나머지 3분은 군인의 신분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일평생 몸담으면서 본인과 가족을 희생하며 나라만을 위해 일평생을 바치신 참 군인이십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적국을 이롭게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어 선처를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주민등록증 사본

날짜: 2026. . .

탄원인 : (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부

부장판사 이정엽 귀중

우편번호:06594

- 등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